

는 그리 많이 이용되어 지지 않았었다. 아직도 폐경기 이후의 여성에서, 악성 난소종양을 의심할 경우에는 우선적인 검사로 취급되고 있지 않으나, 악성종양의 빈도가 낮고, 임신하고자 하는 젊은 여성의 난소 낭종의 종류를 분류하고, 악성 종양을 감별 진단하기 위해서는 많이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난소 종양 조직형의 다양성으로, 흡인된 천자물을 세포학적으로 검사하여 그 아형을 분류 하는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과거 난소종양의 세침흡인 생검은 자궁질부, 직장 혹은 복벽을 통하여 이루어 졌으나, 최근 질식 초음파 검사가 도입된 이래 이 방법이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

연자들은 1989년 부터 1991년 4월 까지 서울대학병원 병리과에서 검색된 난소낭종 중 의무기록의 확인이 가능하였던 25예를 재검색하여 세포병리학적 소견을 분석하여 보았다. 환자는 24명으로 그중 19명이 불임환자로, 시험관 아기 기술을 위해 배란 촉진제 사용후 질식 초음파 검사상 발견된 다성 낭종에서 흡인 되어졌다. 가장 흔하게 진단된 낭종형은 여포 낭종으로 18예 였고 그외의 양성낭종이 2예, 자궁 내막이 3예, 기형종이 1예, 월경 황체 낭종이 1예 였다. 월경황체 낭종으로 확진된 1예는 세포 밀도가 높고 세포송이들이 커서 악성이 의심 되는 것으로 세포학적 진단이 되어졌었다. 질부를 통해 흡인되므로 질부 기원의 편평상피세포들이 도말되는 수가 있어 기형종과의 감별을 요하였다.

3. 악성흉선종의 세침천자 세포도말 소견

Fine Needle Aspiration Cytology of Thymoma, Malignant Thymoma and Thymic Carcinoma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병리학교실
조미연, 박영년, 이광길

흉선종은 세포도말 표본에서 성숙 림프구와 상피세포의 혼합구성으로 비교적 특징적인 소견을 보이나, Hodgkin 림프종, non-Hodgkin 림프종, 정상피종(seminoma), 전이성 편평상피세포암종, 미분화 암종, 그리고 전이성 켈리세포 암종(oat cell carcinoma) 과의 감별에 세심한 주의를 필요로하며, 이때 방사선학적 소견이 도움이 된다. 문헌고찰을 통하여 양성흉선종의 세포도말소견에 관한 기술은 1983년 Dahlgren 등의 보고 이외에 여러 차례 보고된 바 있으나, 악성흉선종이나 흉선암종에 대해서는 국외문헌을 통하여 1986년 Finley 등이 2례의 세침천자 소견과, 1982년 Spahr 등이 폐를 침범한 1례의 객담 탈락세포검사 소견을 보고한것 뿐이다. 이에 대한 국내보고는 없는 실정이며, 악성흉선종과 흉선암종간의 차이에 대해서도 1986년 Finley 등의 보고 이외에 기술이 없다.

저자들은 1989년부터 1990년 사이에 세침천자생검을 통하여 악성흉선종(제1형 또는 2형)으로 진단된 후 외과적 절제에 의하여 조직진단이 가능하였던 흉선종 4례와 전형적인 양성흉선종의 세포도말소견을 비교하고, 악성흉선종의 제1형과 2형간의 차이를 기술하고자 한다. 2례는 세침천자생검시 흉선종으로 진단되었고, 2례는 흉선암종으로 진단되었으며, 흉선종으로 진단되었던 2례는 조직 및 임상진단상 주변 장기로 침윤성 성장을 보여 악성으로 판명되었다. 양성흉선종과 제1형의 악성흉선종(침윤성 흉선종)은 세포도말상에 있어서 차이가 없었다. 제2형인 흉선암종은 저배율소견상 피사성 배경에 다양한 크기의 세포군집과 개개로 흩어지는 세포배열이 관찰되었는데, 성숙림프구의 수는 매우 적었다. 세포군집들은 세포질이 매우 작고 난원형의 핵을 갖는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이들 세포들의 핵은 크기와 모양에 있

어 다양성을 보였고, 염색질의 응집과 크고 뚜렷한 핵소체가 한개씩있어 동일한 크기의 핵과 뚜렷하지 않은 작은 핵소체를 보이는 양성흉선종이나 제 1 형의 악성흉선종의 경우와 상이하였다.

4. 편평세포상피암종의 체액 세포학적 소견

- 10 예에 대한 보고 -

Effusion Cytology of Squamous Cell Carcinoma

- Study of 10 Cases -

원자력병원 해부병리과

하창원, 고재수, 명나혜, 조경자, 장자준

체액에서 편평세포상피암종 세포들을 보고 전이성 편평세포상피암종을 진단하는 경우는 비교적 드물며 편평세포상피암종의 *effusion cytology* 는 널리 연구되고 있지않다. 이에 저자들은 원자력병원에서 1986년부터 1991년 4월까지 5년 4개월동안 해부병리과에 의뢰된 체액 표본 중 세포학적 소견 상 편평세포상피암종으로 진단되거나 의심된 10예를 모아 그 소견을 후향적으로 검색하였다. 도말의 배경은 대개 괴사성이었고 5예에서는 출혈성 경향도 보였으며 대부분 현저한 중피 증식 소견을 보였다. 세포는 주로 균집으로 나왔으며, 균집은 흡인 도말에서보다 크기가 작고 가장자리가 미끈한 모양을 취하고 있었다. 개개의 세포 모양도 원형 또는 난형이었으며, 방추형 세포는 거의 관찰되지 않았다. 핵은 둥글거나 농축되어 있었고, 염색질이 진하면서 고르게 분포하는 양상을 보였다. 9예에서 핵소체는 관찰되지 않았다. 세포질은 양이 비교적 적고 호산성 경향도 미약하였다. 3예에서 편평세포암종 세포로 인지될수 있는 둥글고 큰 농축성 핵을 가진 세포나 올챙이 세포 등 날개의 종양 세포가 관찰되었다. 이상의 세포학적 소견은 선암종과의 감별을 요하였으며, 세포 균집이 둥근 모양을 취하지만 변연 세포가 압축된 모양을 보이는 점과 세포질의 호산성, 불분명한 핵소체 등이 편평세포상피암종을 지지하는 소견이라고 생각되었다. PAS 염색을 시행한 8예 중 5예에서 종양 세포가 PAS에 양성 반응을 보여 PAS 염색이 편평상피암종과 선암종의 감별진단에 도움을 주지 못함도 관찰할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은 소견은 조직에서나 세침흡인 도말에서 보이는 편평세포상피암종 소견과는 다른 것으로 체액에서 편평세포상피암종의 세포학적 진단에 유용하리라 생각되었다.

5. Malignant Cystosarcoma Phylloides

- A Case Report of Aspiration Cytologic Finding -

악성 낭종육종의 세침 흡인 세포학적 소견 - 1 예 보고 -

In Ae Park, and Eui Keun Ham

Department of Pathology, College of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Cystosarcoma phylloides is a usually a tumor of large size which has been growing over a short period of